포화 속 생사 넘어 창조한 인간상 'Homme'

名論名著 - 생텍쥐페리의 'Homme'와 화엄 사상

본지는 월 1회 새로운 기획물인 '名論名著'를 시작합니다. 불교계의 뛰어난 논저 중 핵심을 요약 정리함으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첫 시작은 송마나 작가의 〈생텍쥐페리의 'Homme'와 화엄 사상〉입니다. 〈어린왕자〉로 잘 알려진 생택쥐페리의 전작(全作)에 나타난 'Homme'의 개념 안에 담긴 불교 사상을 해설해 놓은 평론입니다. 〈편집자 주〉

"나의 문명은 신에게 상속해 왔으므로 인간(homme)들을 대문자 '인간'(Homme) 안에서 평등하게 만들었다."

생텍쥐페리와 'Homme'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수없는 죽음과 대치하면서생명의 본질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해답을 얻기 위해 고뇌하는 철학적인 문학가이다.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소 현실에 참여하는 행동 실천가이다. 따라서 그의 관조적인 사유와 명상 그리고 행동을 통한 경험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생텍쥐페리는 작품 속에서 "인간을 지칭할 때 '개인(individu)' '인간(homme)' 그리고 대문자로 된 'Homme'라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세 단어들은 순서대로 인간 정신의 성숙 과정의 단계를 의미한다.

'individu'는 인간 정신의 최하급 단계로 자아(ego)의식에 갇혀서 안이한 사고나 논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유형이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여행하는 여러 별들에서 각각 홀로 살고 있는 왕, 허영쟁이, 주쟁뱅이, 사업가, 점등인, 지리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homme'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해 있는 고정관념과 자아의식의 껍질이 깨어질 때 드러난다. 이 자아의식은 안이한 사고와 지속적인 환경에서는 쉽게 파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체험하면서 아집과 이기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이타심(利他心)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책임과 애정을 갖는 단계이다.

'Homme'는 생텍쥐페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독창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남방 우편기〉나 〈야간 비행〉 같은 초기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인간의 대지〉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전시조종사〉의 후반부에서 자아가 소멸되어 개체가 전체 속으로 흡수되어 새롭게 창조된 'Homme'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Homme'는 자아를 완전히 벗은 대아(大我)로서 자아와 타아의 합일은 물론 우주와의 합일까지 연결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이다.

여기에서 'Homme'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초인'을 떠올리게 한다. 니체는 인간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인 "위버멘쉬(?bermensch)가 들어 설 수 있는 곳에 불교에서는 타타가타(如來)의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보디사트바, 즉 보살이 존재한다"고 했다.

'Homme'와 如來性起

"그대는 '인간'(Homme)이다. 그대는 모든 인간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대는 절대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고도 벌써 우리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모든 사람 속에서 그대를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고귀함과 친절에 둘러싸여 물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위대한 영주로 내게 나타났다. 내 모든 친구와 내 모든 적이 그대 안에서 나를 향해 걸어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적도 없다."

생텍쥐페리의 작품들 중에서 독창적인 어휘, 대문자 'Homme'가 처음으로 등장한〈인간의 대지〉의 한 장면이다.

생텍쥐페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베두인을 'Homme'라고 부른다. 또 가난한 유목민인 베두인을 신(Dieu)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곳에서 'Homme'를 신, 그리고 영주(chef)와 동일하게 지칭한다. 영주는 〈성채〉에서 인간이 이룩해야할 마음의 성을 건설하는 주인공으로서 신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생텍쥐페리가 믿었던 기독교적인 종교관에서는 그의 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이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신관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랍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신이란 신분이나 인종, 언어와 종교를 초월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친구와 적이 하나이며,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적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현상계의 대립적이고 양극적인 개념을 분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화엄의 성기사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시조종사〉에서도 프랑스 사람이나 노르웨이 사람도 'Homme' 안에서는 하나라고 한다. 더 나아가 〈어린 왕자〉에서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뱀 그리고 꽃과 나무와도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로 모든 자연물과의 합일, 바로 우주와의 합일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기사상은 온 우주가 비로자나불(法身)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성을 드러내지만 그것들은 일체 총섭의 진여로서 서로 다름이 아닌 것이다.

'Homme'와 '法界緣起'

생텍쥐페리는 뒤죽박죽 섞여있는 사람과 족속과 민족이 하나의 '인간'(Homme)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개체와 전체는 하나라는 '법계연기(法界緣起)'의 사상이다.



생텍쥐페리의 생전 모습. 그는 1,2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비행사이면서 문학가였다. 동시에 최고의 인간성을 복원해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실천가였다.

전쟁 속에서 생사 위기 넘기며
새로운 인간상 'Homme' 정립
화엄의 性起·緣起·보살행 내재
Homme통해 공동체 구현 주장

"'인간'(Homme)은 신 안에서 형제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묶어주는 매듭이 없다면, '인간'(Homme)은 그저 병렬로 나란히 놓인 존재에 불과하지."

생텍쥐페리는 '인간'(Homme)이 신과 형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것은 매듭이라며, 묶어주는 매듭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서로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화엄법계는 인드라망의 비유와 흡사하다. 그물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주망 역시 동시상호의 인과관계와 상입(相入)으로 걸림이 없는 만유(萬有)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라시대의 의상(義湘 625~702) 또한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통하여 원융한 법계연기를 밝혀준다. 이것 역시 시작과 끝이 없이 이어져 끊임없이 순환하는 인드라망과 같다.

김진은 〈화이트헤드와 화엄형이상학〉에서 위와 같은 의상의 해인도(海印圖)에 의거한 오딘의 해석을 인용하여 화엄의 법계연기를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화엄의 개념체계에 의하면 다르마는 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것과 후속하는 것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인과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화엄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은 동시에 상입상즉이 가능하다."

인간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하나로 융섭하고 있다. 우주의 존재론적 결합성은 전체와 객체, 주체와 대상과 같은 상대적인 대립자들의 변증법적 진입(dialectical penetration)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룬 '연장적 연속체'이다. 'Homme'에는 연기(緣起)의 존재론이 인과(因果)에 의한다는 법계연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Homme'와 보살행

생텍쥐페리에게 명상의 결론은 행동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명상은 정신이고 행동은 육체라는 도구로 인하여 드러난다. 이러한 깨달음은 체험을 통해 인본주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보살의 상구보리(上求菩提)가 생텍쥐페리에게는 행동의 초월적인 의지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장면을 〈야간 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 동안 기차와 선박보다 빠르게 비행하여 이겨놓은 것을 매일 밤에 잃고 있으니까 말이다."

야간 항로 개척은 인류 문명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생텍쥐페리는 이 개척에 동료인 메르모와 기요메와 함께 참여하였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야간 비행〉을 썼다. 당시 비행기는 레이다가 없고 엔진, 날개, 방향타 등 기본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폭풍우나 눈보라가 치는 밤에 야간 정기 항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이루어낸 생텍쥐페리의 초월적인 행동은 아집을 탈피하여 구경(究竟)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Homme)을 내안에서 간구하는 상구보리이다.

생텍쥐페리에게 있어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현실참여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의식으로 나아간다. 그가 공동체에 귀속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구절들은 수없이 많다.

"신을 계승하는 이 문명은, 각각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로 만들었다. 한 개인은 전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해야 하며, 여기서는 그게 어리석은 계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을 통한 '인간'(Homme)에의 존중이다."

인간은 신에 있어 동등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각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자가 된다. 개인이 공동체의 '인간'(Homme)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희생이며, 이것이 바로 자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하여 만물과 내가 서로 상입상즉(相入相卽)하여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였다. 때문에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보살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화엄의 깨달음은 중생 구제의 보살행을 필연적으로 이끌어간다.

생텍쥐페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하는 비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Homme)을 창조한다. '인간'(Homme)은 자신을 극복하여 인간 정신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Homme)은 자기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인간'(Homme)으로서 '나'를 일컫는다.

생텍쥐페리는 이 '인간'(Homme)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열쇠라고 했다.

'인간'(Homme), 이것에는 너와 나는 신(神)의 성(性)이 깃든 법신(法身) 자체이므로 불이(不二)라는 성기(性起)사상과, 너와 나는 물론이고 삼라만상까지 인연에 의하여 유기체를 이룬다는 연기(緣起)사상이 담겨있다. 생텍쥐페리는 이와 같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휴머니즘의 공동체를 위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행동의 본질은 희생이며, 바로 화엄의 보살행이다.

인류를 위한 새 문명의 창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생텍쥐페리, 그는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른 'Homme'였다.



송마나 작가는
전남 완도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 졸업. 2016년 〈에세이 문학〉 등단. 2017년 〈한국산문〉 평론 등단.

포산당 혜인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 제주 약천사 회주이셨던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앙망합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6월 13일 (화, 음 5.19)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은해사 육화원
- 연락처 : 054)335-3318 ~ 9 종무소
  054)335-5220 원주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 해 사 주지 운곡 돈관 분향 삼배
포산 문도대표 덕조 구배